



동경국제도서전, 30개국 600업체 참가한 가운데 성료

인협, 한국인쇄문화관 마련 · 수출상담도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7월6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동경국제도서전(TIBF :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2006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적극 홍보했다. 또한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은 7월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 개막식 테이프 커팅식에 한국 인쇄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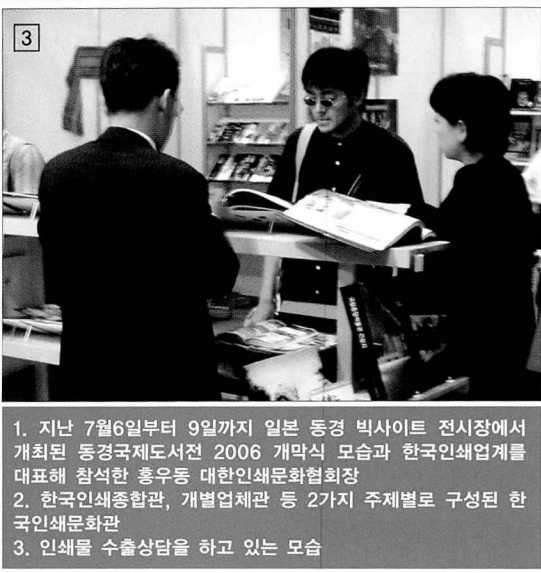
30여개 국가에서 6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동경국제도서전실행위원회(Reed Exhibitions Japan Ltd.) 주최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전시규모 : 약 2만㎡)에는 약 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994년부터 매년 개최, 올해로 13회를 맞은 동경도서전은 세계 2위의 출판시장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열리는 만큼 소설, 비즈니스, 경제, 교육, 만화, 잡지, 전문서적 등을 망라하는 모든 출판 분야의 최신 도서가 출품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도서전, 인문·사회과학도서전, 아동도서전, 편집프로덕션전, 학습서 및 교육 소프트웨어전, 전자출판 등 6개의 전문전시회가 함께 열려 전시 아이템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각 전시장 사

이 공간에 'TIBF아트'라는 특별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미술공예, 사진, 현대문화, 미술사, 건축, 실내장식, 제품디자인 등의 예술서적을 전시해 주목을 끌었다.

한국인쇄종합관 · 개별인쇄종합관 2가지 주제로 운영

인협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인쇄종합관, 개별업체관 등 2가지 주제별로 구성된 한국인쇄문화관(30㎡ 규모)을 조성해 우리나라 인쇄문화를 적극 홍보했다. 종합관에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와 목활자본인 훈민정음의 고인쇄 시연을 통해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역사성을 홍보했으며, 21개의 인쇄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별업체관에서는 700여점의 고급인쇄물, 박엽지인쇄물 등을 전시함으로써 국내 인쇄기술력을 홍보했다. 특히 대한교과서, 청아문화사, 성우에드컴 등의 직접 참가업체는 심도 깊은 수출상담 업무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인협은 선조들의 찬란한 인쇄문화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수출상담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쇄중주국임



1. 지난 7월6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된 동경국제도서전 2006 개막식 모습과 한국인쇄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2. 한국인쇄총합관, 개별업체관 등 2가지 주제별로 구성된 한국인쇄문화관
 3. 인쇄물 수출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우리 인쇄업계가 높은 인쇄기술을 보유했음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인협 측은 “인쇄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쇄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국제도서전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면서 “특히, 일본은 최첨단 인쇄시설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이 크고 인쇄물의 수요가 다양해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데 매우 유리한 만큼 인쇄업체 각각의 특성을 살려 전시함으로써 해외진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협은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하기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참여업체 신청 및 선정 작업을 거쳤으며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인쇄기술 홍보 및 수출상담을 통해 200여건 약 300만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갑춘 차장 kjcho@print.or.kr